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③ 경기도 안성 석남사 사철나무

대칭 떠올리게 해준 비대칭 나무

사천왕문을 통과할 때는 주눅에 숨이 막혀 빠르게 합장하고는 쫓기듯 휙 지나간다. 무서워할 나이는 지났지만, 동면에서 갓 깨어난 개구리처럼 발아래에 움츠려 있는 생령좌 면상이 내 혀에서 발설하지 않는 죄를 낱낱이 반추하는 것 같아서다. 그런데 석남사 금광루 마룻장을 받치고 있는 듯한 부라린 눈앞에서는 사진을 찍고 있었다. 유명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라는 걸 알고 간 친근감이 그동안의 잘못을 탁탁 털어주고 있는 걸까?

그늘진 누각을 빠져나오니 극락을 가리키는 듯한 비탈진 돌계단들이 대웅전 앞까지 좌우대칭 기와 얹힌 낮은 벽돌담 사이에서 펼쳐져 신음 같은 탄성을 부르짖게 한다. 오를까, 말까 망설여지는 건 꼬불친 허물들이 도깨비 방망이로 난타를 당해도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다는 단언이 앞서서이고, 그래도 발을 내딛는 것은 하얀 밤에 날아간 풍등 하나 되돌아와 손에 잡히면 용서를 구하는 문장 적어 날려 보낼 발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다.

하지만 민들레 홀씨보다 못한 가벼운 불심으로 요원하기만 한 수미산 행보는 삐거덕거리고 곁길로 빠져 영산전 아래 사철나무를 맴돈다. 신라 고승 석선(奭善)이 창건한 뒤 고려 혜거국사(慧炬國師)의 중건을 거쳤지만 임진왜란 때 잿더미가 되었고, 이후 중수한 전각 가운데 대웅전과 영산전이 천년고찰의 정취를 내비치고 있는 석남사에서 중도의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그것은 대칭의 미를 완벽하게 구조화하고 있는 나무들 때문이었다. 절 입구에서부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그루의 무궁화, 그리고 참된 극락길을 사색시키려고 시선을 잡아당긴 사철나무들, 마지막으로 대웅전 앞에서 금강역사처럼 지탱하고 있는 회화나무들이었다.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공부〉를 보면, "태초에 완벽한 대칭이 있었다 … '태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는 표현은 물리학에서 태초에 '자발적으로 대칭이 붕괴되었다' 는 표현과 같은 의미이다. 우주는 '대칭' 과 '대칭의 붕괴' 두 가지뿐이다"라는 글이 있고, 〈신의 입자〉를 보면, "신은 힉스를 소환하여 앞에 앉혀 놓고 웃음을 간신히 참아가며 준엄하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세상의 대칭을 망가뜨렸는가?' "라는 글이 있다. 이는 무엇도 없지만 본래 하나인 공(空)이 대칭일 거라는 과학자들의 이론 같은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명도 가급적 균형이 맞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철나무가 보이는 안성 석남사 전경.

식물은 좌우대칭이 아니다. 축구공처럼 완벽하지 않은 원 모양을 가진 원줄기의 곧지 않은 수직 상승, 그리고 사방으로 그물 친 가지들도 거기에 매달린 잎의 수도 제각각이다. 우리 몸은 좌우대칭이다. 이에 대해 김성철 교수는 "동물이 움직이는 본래 이유는 먹이를 찾는 것이고 먹이는 내 주변의 어딘가에 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풍경을 좌우로 가를 때, 먹이 탐지에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풍경을 균등하게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붙박이로만 생장할 수 있는 식물에 가해지는 대칭 습성이 정원의 역사일 것이다. 그래서 숲속 나무와 우리 곁의 나무 외형이 많이 다른데, 그 중 하나가 사철나무다. 영역을 표시하는 생울타리로 쓰이다 보니 본래 5미터까지 자라는 키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고, 덕분에 애써 솟은 새 가지는 뻘쭘해 보여 쓱싹 흔적을 지우고, 홀로 식재된 경우라도 베토벤 머리가 되는 건 허락받지 못해 정갈해 보이기만 하는 이 나무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황록색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영근 붉은 열매 사이에서 네 갈래로 나타나는 주황색 씨다. 늘 그 자리에서 늘 그만한 크기로 늘 푸르게만 보이는 나무라 눈길을 주기 쉽지 않은데, 푸른 잎 여백에서 용발가락이 움켜준 여의주 같은 광경을 보면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열정의 화신에 덴 듯한 느낌이 온다. 그래서 돌담에 웃자란 사철나무 잎들의 빈틈을 빠뜨리지 않고 훑는데 누런 열매 껍질들만 쪼그라들고 있어 아쉬움이 극진할 무렵 갈라진 사각이 주는 대칭에서 그나마 안위를 얻는다.

그때 문득 작디작은 꽃잎도 4개, 수술도 4개, 암술 씨방도 4개 그래서 사계절 푸른 사철나무인가 하는 독백에 '그랬던가. 내가 왕여였던가. 기억 없이 남은 감정은 내가 왕여인 걸 잊지 말라는 스스로 주는 벌이었던 걸까' 라는 〈도깨비〉 대사가 돌계단을 마저 오르라고 주문한다. 등에 사철나무 감정을 짊어지고 있지만 그보다 높은 곳을 향하는 나는 진정 무엇인지 헤아려 본다. "소립자들은 허깨비(ghost) 같은 존재들이다"이라는 어려운 말이 다리를 휘청거리게 하다가 "미시적 속성은 관찰된 속성일 때 비로소 속성이다"라는 더 어려운 말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래도 늘 있는 그 태초의 대칭 공(空)을 깨달아 보겠다는 나를 존재하게 한다.

대웅전 앞 회화나무에 걸려 이승을 떠나지 못한 색색의 풍등이 그 사이로 밀려오는 음산한 겨울산을 점처럼 빛내고 있다. 대칭으로 서 있는 나무들은 아니지만, 대칭인 내가 그들을 보며 감사하게도 막힌 숨통을 트이고 있다. 태초의 바람이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③ 송수권의 '산문(山門)에 기대어'

우리민족 가슴속에 면면히 흐르는 윤회사상

산문(山門)에 기대어

누이야
가을산(山) 그리매에 빠진 눈썹 두어 낱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끌을 따라가면
즈믄밤의 강(江)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苦惱)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더러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山茶花)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山) 그리매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盞)은 마시고 한 잔(盞)은 비워 두고
더러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山) 그리매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낱이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 옴을

(송수권 시집, 〈산문(山門)에 기대어〉, 문학사상사, 1980)

송수권(1940~2016) 시인에겐 특별한 별명이 하나 붙어 다닌다. '휴지통에서 나온 시인' 이다. 그 별명이 따라붙은 데에는 '슬픈(?)' 사연이 있다.

1975년 겨울 어느 날,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문학청년 송수권은 서울 거리를 떠돌다가 어느 여관에 들었다. 서대문에 있는 화성여관이었다. 신춘문예에도 여러 번 응모하고, 문학잡지 신인상에도 여러 번 응모했지만 번번이 낙선했다. 그해도 신춘문예에 응모했는데 낙선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거리를 방황하다가 잠 잘 곳을 찾아 여관에 들었다. 그런데 문득 〈문학사상(文學思想)〉(지금도 발행되고 있음)이라는 문학월간잡지에서 신인상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문제는 응모마감 시간이었다. 모레가 응모마감 시한이었던 거다. 그것을 본 문청(文靑) 송수권은 급한 마음으로 백지에 이 시를 썼다. 그리고 황급히 응모했다.

'휴지통 사건' 은 심사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문학사상〉 주간이었던 이어령(이화여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언론인) 前 문화부 장관은 화장실에 다녀오다 우연히 사무실에 있는 휴지통을 보았다. 휴지통 안에는 꾸깃꾸깃 접혀서 내버려진 종이뭉치가 있었다. 이어령 주간은 휴지통에서 그 종이뭉치를 주웠다. 그리고 펴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가 적혀 있었던 거다. 응모작품을 정리하던 〈문학사상〉 기자가 "원고지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응모한 원고"라며 "보나마나 작품 수준도 형편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심사에도 올리지 않고 그냥 구겨서 휴지통에 버린 것이다. 당시는 200자 원고지에 작품을 써서 응모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그것을 이어령 주간이 주워서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시의 탁월함을 보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그해 〈문학사상〉 신인상 당선작으로 내보낸 것이다. 뒤늦게 알려진 이 일화를 계기로 이 작품은 '휴지통에서 나온 작품' 이라는 '입소문' 이 문단에 퍼져 화제가 됐다. 그와 함께 송수권 시인에겐 평생 '휴지통에서 나온 시인' 이라는 '아름다운 별명' 이 훈장처럼 따라다녔다.

이 작품은 젊은 송수권이 실제로 겪은 체험을 시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 사실은 이 시의 첫 행에 바로 나타난다. '누이야' 가 바로 그것이다. 그 '누이' 는 '군대에 다녀온 뒤 산소에 가서 농약 먹고 죽은' 남동생을 부르는 호명이었다. 젊은 송수권 시인의 마음속엔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이유도 모르게) 집안 산소에 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동생' 의 모습이 고통으로 항상 남아 있었고, 그렇게 간 남동생을 늘 그리워하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내 '한 잔' 너 '한 잔' 하며 그 남동생을 이승으로 불러낸 뒤, 그 남동생을 위한 비가(悲歌)를 불렀던 것이다.

'산문(山門)' 은 '절집' 이나 '절집 바깥문' 을 말한다. 보통 일주문(一柱門)을 뜻한다. 일주문은 절집에 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이다. 일심(一心)을 상징하는 말로서, 한 줄로 된 기둥(보통 2개 또는 4개의 기둥) 위에 지붕이 얹혀 있는 문을 말한다. 불교에서 이 일주문(산문)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 일주문(산문)을 경계로 승속(僧俗)이 갈리기 때문이다. 이 일주문(산문)은 또한 이승과 저승[冥府]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그 승속의 갈림길에서, 이생과 명부의 갈림길에서 송수권 시인은 불현듯 죽은 남동생이 그리워 이승(못물)으로 불러낸 뒤 술 두 잔을 부어놓고 너 한 잔, 나 한 잔 하며 대화를 나눈 것이다.(제사 지낼 때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불교의 윤회사상에 철저히 바탕을 둔 시다. 시인은 '누이야' 하고 죽은 동생을 먼저 불러낸다. 시인은 이어 동생의 죽음을 '가을산 그리매에 빠진 눈썹 두어 낱' 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로 그리기도 하며,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 으로 형상화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살아난 죽음은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믄밤의 강' 으로 일어서고, '더러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혹은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매우 역동적으로) 시인의 마음속에 재생한다. 그리하여 그 동생은 '눈썹 두어 낱이' 이 되어 '지금 이 못물 속(이승)에 비쳐' 오고, 시인은 '못물 속(이승)의 눈썹으로 환생' 한 동생과 그리운 재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유전(流轉)이 불교적 상상력을 통해 슬프지만 퍽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 시의 모태는 신라 향가 '제망매가(祭亡妹歌)' 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10구체 향가로서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 재를 올리며 부른 노래' 다. 삶과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뛰어난 문학적 비유를 통해 종교적(불교적)으로 승화시킨 노래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의 마음속엔 면면히 불교가 살아 숨 쉬고 있다. 참, 시 본문의 괄호 안 한자는 시 원본이 그 한자대로 쓰여 있음을 뜻한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